

# 이야기지도안

## 교육목표

**제목** 개구리로 아버지를 구한 소년 홍섭

**나이** 어린이 (6~9세)

**주제** **목표** : 개구리로 아버지를 구한 효자 홍섭의 지혜를 배운다.  
**주제** : 지혜

**핵심어** 지혜, 홍섭, 홍언필, 개구리, 구렁이, 영의정, 효

**한국문화** **목표** : 아버지와 홍언필과 아들 홍섭의 가족 사랑을 알 수 있다.  
**요소** :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효와 사랑

**한국어** **목표** : 홍섭, 개구리, 구렁이의 행동을 표현한 다양한 의태어를 배운다.  
**단어** : 아장아장, 폴짝폴짝, 스르륵스르륵, 옆치락뒤치락  
**표현** : 아장아장 걷다, 폴짝폴짝 뛰다.  
스르륵스르륵 움직이다.  
옆치락뒤치락하다.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개구리로 아버지를 구한 소년 홍섬’ 이야기예요.

여러분, ‘용기 있다.’와 ‘용감하다.’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두려움을 이겨 내고 씩씩하고 기운차게 행동하는 것이 용기 있고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도 용감하게 행동했던 적이 있나요? 홍섬은 위험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아버지를 구한 용기 있는 아이였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지요?



##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개구리로 아버지를 구한 소년 홍섬’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옛날 조선시대 때 흥언필 대감이 살았어요. 어느 날 대감은 마루에서 책을 읽다가 깜빡 잠들었지요. 그런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끄응. 아이고, 힘들어라.’

겨우 눈을 뜬 대감은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대감 가슴에 딱 하니 올라타 있었던 거예요.

‘어이쿠! 큰일 났다!’

구렁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혀만 날름댔어요. 대감도 구렁이에게 물릴까 봐 꿈쩍하지 못했지요. 온몸이 점점 쭈셔왔어요.

‘어떡하지?’

그때였어요. 어린 아들 흥섬이 아장아장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대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혹시 구렁이가 아들 흥섬을 물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저리 가라. 위험해!’



## 이야기 들려주기

대감은 아들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말소리를 내면 구렁이가 움직일 것 같았거든요. 홍섬은 그런 아버지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어서 가라니까!’

대감은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어요. 대감은 말뚱말뚱 서 있는 섬이가 너무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섬이는 한참이나 서서 아버지와 구렁이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알겠다는 듯 조심조심 밖으로 나갔어요.

‘휴, 다행이야.’

대감은 섬이가 열른 어른들을 데려와 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하늘도 야속하여라.’

대감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요.

그때 살금살금 누군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섬이야!’



## 이야기 들려주기

대감은 눈을 번쩍 떴어요. 흥심이 또 혼자 왔던 거예요. 깜짝 놀란 대감은 어쩔 줄을 몰랐지요. 잘못하다가는 둘 다 구렁이한테 물릴 것 같았어요.

‘제발, 섬아. 저리 가거라. 얼른!’

대감이 다시 눈짓을 보냈지만 섬이는 물려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구렁이에게 손짓까지 했어요.

“여기 봐라. 이리로 와!”

섬이가 구렁이를 향해 말했어요. 그러고는 땅에 뭔가를 툭 하고 떨어뜨렸어요.

“개굴! 개굴! 개굴!”

그것은 바로 통통하고 큼직한 개구리였어요. 땅에 떨어진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기 시작하자, 구렁이가 움찔했어요. 그러더니 개구리를 향해 스르륵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폴짝! 폴짝! 폴짝!”



## 이야기 들려주기

“스르륵, 스르륵.”

개구리는 구렁이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힘껏 뛰었어요. 구렁이도 개구리를 잡으려고 빠르게 기었지요. 구렁이는 순식간에 대감의 가슴에서 내려왔어요.

개구리와 구렁이는 앞치락뒤치락하며 마루 밑을 지났어요.

“허업!”

대감은 마침내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어느새 구렁이는 개구리를 쫓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감은 그제야 일어날 수 있었지요.

“휴, 살았다. 섬이야, 이리 와라!”

섬이는 종종종 뛰어와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 이야기 들려주기

대감도 섬이를 꼭 안아 주었지요.

“네가 날 구했구나. 고맙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러자 홍섬은 아버지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잘못하면 구렁이한테 더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구렁이는 개구리를 좋아하니까 그걸 이용했어요. 그래서 크고 통통한 개구리를 잡아 왔어요.”

대감은 똑똑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무서울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지혜롭고 용감하구나!”

홍섬은 아버지가 무사해서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대감과 홍섬의 이야기는 금방 소문이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지만 지혜롭고 용감한 섬이를 크게 칭찬했지요.

“섬이는 나중에 크게 될 거야.”



### 이야기 들려주기

이렇듯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홍섬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어요. 글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웃들에게도 항상 다정했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려고 애썼어요.

어른이 된 홍섬은 어려운 과거 시험에도 척 합격했어요. 열심히 일해 큰 벼슬에 오른 후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또, 가장 높은 벼슬에 오른 홍섬은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항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였지요.

어린 시절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홍섬은 큰 사람이 되어 지혜와 용기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답니다.



##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아버지를 구한 홍섬은 얼마나 어렸을까요?

홍섬은 ‘아장아장’ 걸을 만큼 어렸어요. ‘아장아장’은 아기들의 걸음걸이를 뜻한답니다. 하지만 섬이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폴짝폴짝’ 뛰는 개구리를 가져와서 구렁이 앞에 놓았어요. 그러자, 구렁이가 개구리를 따라 ‘스르륵스르륵’ 쫓아갔지요. ‘아장아장’, ‘폴짝폴짝’, ‘스르륵스르륵’은 움직임이나 상태를 흉내 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행동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을 더 찾아보세요.

여러분, 홍섬과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걱정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요. ‘사랑’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덕분에 두 사람 모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특히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효도’라고 하고, 효를 실천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해요. 한국의 효에 대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 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개구리로 아버지를 구한 소년 홍섬’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홍섬은 어린 나이에 지혜롭게 개구리로 구렁이를 꺾어 위험에 처한 아버지를 구했어요. 그리고 글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나라의 관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요. 조선에서 제일 높은 벼슬인 영의정에도 여러 번 올라 백성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했다고 해요.



##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땡땡! ♪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